

개인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허 재 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이 우리문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유용한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615명 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위계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은 우리문화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성향을 고려했을 때 개인주의 가운데 수평-개인주의가 그리고 집단주의 가운데 수평-집단주의가 자기존중감이나 자기수용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사회가 집단주의 사회이지만 개인주의 성향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두 성향이 모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요어 :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기존중감, 무조건 자기수용, 주관적 안녕감

* 본 연구는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내연구비(KURI2009-007)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허재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심리학과, (363-944)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440
Tel: 043-270-0175, E-mail: oshoheo@kkot.ac.kr

최근 들어 상담학계에서는 우리문화에 맞는 상담 모형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윤호균, 2007; 장성숙, 2007; 주은선, 이해경, 주은지, 2007). 이렇게 상담학계에서 우리문화에 맞는 상담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상담이론이 탄생한 서구문화와 우리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허재홍, 진현정, 2008). 서구문화와 같이 사회의 근본 구성요소를 개인으로 보고 개인의 개체 특성을 강조하는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고 동아시아 문화와 같이 사회의 근본 구성요소를 관계 또는 일차 집단으로 보고 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사회를 집단주의사회라고 한다(Triandis, 1995). 상담에서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 상담에서 내담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초점 맞추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성이 강하고 독특한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독특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연계성과 상호의존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보편적 인간으로서 자기를 깨닫도록 하고 단점을 수용하여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조궁호, 2006). 문화에 따라 상담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경, 서은국, Chu, Kim, & Sherman, 2008)에서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억제가 성격5요인, 자기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정서억제가 외향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던 반면,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정서억제가 성실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정서억제가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던 반면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두 변인간 상관이 없었다. 또한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정서억제가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졌던 반면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정서억제가 주

관적 안녕감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상담전략이더라도 문화맥락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와 함께 문화에 따라 정신건강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조궁호, 2006)을 감안하면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정신건강 변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었던 개념이 자기존중감이다. 자기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 평가로서 Rosenberg가 처음 개념을 제안한 이래 정신건강의 필수요소로 간주되었고, 지난 20년간 논문 수만 20,000건이 넘을 정도로 무수히 연구되었다(Leary, 1999). 자기존중감 연구를 종합해 보면 높은 자기존중감은 안녕감과 관계가 있고, 낮은 자기존중감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Mecca, Smelser, & Vasconcellos, 1989; Mruk, 1995). 자기존중감이 활발히 연구된 것과는 달리 문화 맥락에서 자기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Wang & Ollendick, 2001). 문화맥락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을 밝힌 연구동향을 보면 북미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좋게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Baumeister, 1993;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은 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자기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Heine, Takata, & Lehman, 2000). 이런 결과는 31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iener와 Diener의 연구(1995)에서도 나타나는데 서구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의 대학생들이 아시아권 대학생들보다 자기존중감 점수가 높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기를 좋게 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 동기인데(Brown, 1998; Heine, et al., 1999; Matsumoto, 2000; Leary & Baumeister, 2000) 동양문화권보다 서구 문화권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 척도가 서구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Heine, et al., 1999). 자기존중감이 서구문화권보다

아시아문화권에서 점수가 낮고 서구가치를 반영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기존중감을 문화맥락에서 연구한 국내 자료를 보면 자기존중감은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박혜경의 연구(1995)에서는 자기존중감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자기고양 편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허재홍과 진현정의 연구(2007)에서도 자기존중감은 자기고양 편향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변인이었다.

문화에서 자기존중감이 중요한 것은 개인이 속한 문화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행복감을 높이기 때문이다(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Kwan, Bond, Singelis, 1997).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고운주, 2001), 이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집단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행복감을 높인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문화가 점차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고 있으며 전통가치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김일명, 김명자, 1989; 나은영, 차재호, 1999; 이종한, 1993; 한규석, 신수진, 1999; 한유화, 정진경, 2007).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규석, 신수진, 1999)에 따르면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한성열, 안창일, 1990) 집단주의 성향은 연령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성향 교육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세대차를 분석한 연구(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에서도 청소년은 진보성향인 반면 성인은 보수성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우리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윤명의 연구(2009)에서는 세대간 차이는 있어도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여전히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성향과 생활만족감간 관계를 알아본 연구(이순형, 이영미, 1997)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생활만족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은 생활만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현재 우리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화가치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자기존중감과 행복에 중요한지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행복은 긍정심리학이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게 된 개념이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정신건강을 단순히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Arthaud-Day, Rode, Mooney, & Near, 2005). 행복은 재산, 교육정도와 같이 개인 외부요소로 측정할 수도 있고 개인이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같이 내부 요소로 측정할 수도 있으나, 이 두 요소 가운데 개인의 외부요소보다는 개인의 내부요소가 삶의 질을 더 잘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궁호, 1999), 이렇게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다. 주관적 안녕감을 3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Diener와 Diener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보다는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에서 평균값이 더 높았다.

그간 연구를 보면 자기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iener & Diener, 1995; Lucas, Diener, & Suh, 1996). Diener와 Diener(1995)는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주의문화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집단주의 문화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주의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터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잘 예언하는 변인이었으며(Yetim, 2003), 홍콩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Kwan, Bond, & Singelis, 1997)(허재홍, 진현정, 2008에서 재인용). 또한 국내 연구(박해경, 1995; 허재홍, 진현정, 2007)을 감안해 보더라도 자기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을 잘 예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가치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알아보려고 한 것은 자기수용이 문화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한 것은 자기존중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 때문이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기존중감은 높을수록 좋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기존중감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며(Ellis, 1994), 자기존중감이 극단적으로 높으면 폭력 성향을 보일 수 있고(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높은 자존심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Shrauger & Lund, 1975). 자기존중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 자기수용이라는 개념이다. 자기존중감이 자기가치에 대한 전반 평가라면 자기수용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Chamberlain와 Haaga(2001a)는 Ellis의 RET 이론을 바탕으로 무조건 자기수용 척도를 개발하고 자기수용과 정신건강과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Chamberlain와 Haaga(2001a)의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수용은 삶의 만족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높고, 분노조절 문제나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높았다(Carson & Langer, 2006; Chamberlain & Haaga, 2001a, 2001b; Flett, Davis, & Hewitt, 2003).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기수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없으나 개인주의 문화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은 생활만족감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Innes,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자기수용이 문화성향(개인주의 가치와 집단

주의 가치)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존중감이 개인의 문화성향(개인주의와 집단주의)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둘째, 자기수용이 개인의 문화성향(개인주의와 집단주의)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개념이 문화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도, 강원도 및 충남 소재 대학의 재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하였다. 이 가운데 설문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615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설문문은 강의 담당교수의 협조를 얻어 강의 시작하기 전 또는 후에 하였고 소요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 남학생은 248명(40.3%)이었고 여학생은 367명(59.7%)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많았다.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학생은 7명이었다(1.1%). 연령은 남학생이 평균 20.1세(표준편차=3.3)였고 여학생은 20.0세(표준편차=3.7)였다.

측정도구

문화성향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 (1995)가 제작한 INDCOL 척도를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 성향

과 집단주의 성향을 각각 수직-수평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집단이 수직-개인주의, 수평-개인주의, 수직-집단주의, 그리고 수평-집단주의로 이렇게 네 집단이 된다. 수직-개인주의(VI) 특성은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고, 수평-개인주의(HI) 특성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수직-집단주의(VC) 특성은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중요시하고, 수평-집단주의(HC) 특성은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요시한다(조공호, 2002; 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이 척도는 9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VI=.75, HI=.81, VC=.67, HC=.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제작한 것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형 5문항과 부정형 5문항,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자기수용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Chamberlain과 Haggga(2001a)가 개발하고 김사라형선(2005)가 번안한 무조건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0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주의 관점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긍정 감정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와 부정감정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사회에 따라 문화성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Diener & Diener, 1995).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

관적 안녕감을 문화간 연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Diener, Emmons, Lazen과 Griffen(1985)가 개발한 생활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5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였다.

자료분석

개인의 문화성향을 '수직-개인주의, 수평-개인주의, 수직-집단주의, 수평-집단주의'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회귀분석은 SPSS 11.5를 사용하였다. 문화성향이 자기존중감이나 자기수용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세 단계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경로분석을 하여 모형적합도를 알아보았다. 모형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 CFI, TLI, NFI, RMSEA를 사용하였다. χ^2 은 사례 수에 너무 민감하여 신빙성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모형들 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CFI, TLI, NFI는 0인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고, 1인 경우 완전히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90이 넘으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한다.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모형으로, 그리고 .08 이하면 적절한 모형으로 간주하며, .10 이상이면 그 모형은 채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홍세희, 2000).

결 과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와 평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와 평

균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상관을 보면 먼저 문화성향에서 수직-개인주의는 자기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고 자기수용이나 주관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자기수용: $r=-.096, p<.05$;

자기수용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자기존중감 : $r=-.513, p<.001$; 자기수용 : $r=-.324, p<.001$)(표 1).

표 1. 주요 변인들간 상관관계와 평균(N=615)

	1	2	3	4	5	6	7	8	9
1. 수직-개인									
개인주의									
2. 수평-개인	.274***								
3. 개인주의 ¹⁾	.793***	.803***							
집단주의									
4. 수직-집단	.303***	.288***	.370***						
5. 수평-집단	.125**	.335***	.290***	.560***					
6. 집단주의 ²⁾	.234***	.355***	.370***	.862***	.902***				
7. 자기존중감	.051	.412***	.292***	.271***	.402***	.387***			
8. 자기수용	-.096*	.284***	.120**	.156***	.291***	.259***	.391***		
9. 주관적 안녕감	-.087*	.187***	.064	.190***	.258***	.257***	.513***	.324***	
평균	35.8	41.2	38.6	39.2	40.9	40.2	51.2	84.3	20.0
표준편차	(6.45)	(6.63)	(5.21)	(5.49)	(6.47)	(5.25)	(8.90)	(11.48)	(5.43)

1) 개인주의 : '수직-개인'과 '수평-개인'의 평균

2) 집단주의 : '수직-집단'과 '수평-집단'의 평균

* $p<.05$, ** $p<.01$, *** $p<.001$

주관적 안녕감 : $r=-.087, p<.05$). 수평개인은 자기존중감, 자기수용,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자기존중감: $r=-.412, p<.001$; 자기수용: $r=-.284, p<.001$; 주관적 안녕감 : $r=-.187, p<.001$). 수직-집단주의는 자기존중감, 자기수용,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자기존중감 : $r=-.271, p<.001$; 자기수용 : $r=-.156, p<.001$; 주관적 안녕감 : $r=-.196, p<.001$), 수평-집단주의도 자기존중감, 자기수용,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자기존중감 : $r=-.402, p<.001$; 자기수용 : $r=-.291, p<.001$; 주관적 안녕감 : $r=-.258, p<.001$). 그리고 자기존중감과 자

개인의 문화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개인의 문화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간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야 하고,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야 한다, 그리고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면서 (1)의 독립변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들어야 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큰 것이고 0이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인희, 2009에서 재인용).

먼저 문화성향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문화성향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른 변인들이 억제변수로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문화성향 가운데 수직-개인($t=-4.2, p<.001$), 수평-개인($t=3.5, p<.001$), 수평-집단($t=3.5, p<.001$)이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마지막으로 개인의 문화성향과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

표 2. 자기존중감에 대한 문화성향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F(4, 583)
자기존중감	수직-개인	-.08	-2.2 [*]	.26	50.6 ^{***}
	수평-개인	.32	8.2 ^{***}		
	수직-집단	.05	1.2		
	수평-집단	.28	6.2 ^{***}		

* $p<.05$, *** $p<.001$

표 3.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문화성향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F(4, 583)
주관적 안녕감	수직-개인	-.18	-4.2 ^{***}	.11	17.8 ^{***}
	수평-개인	.15	3.5 ^{***}		
	수직-집단	.11	2.2		
	수평-집단	.17	3.5 ^{***}		

* $p<.05$, *** $p<.001$

표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문화성향과 자기존중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주관적 안녕감	모형 1	.33	.11	.11	17.7 ^{***}
	모형 2	.54	.29	.18	145.4 ^{***}

*** $p<.001$

문화성향 가운데 수직-개인($t=-2.2, p<.05$), 수평-개인($t=8.2, p<.001$), 수평-집단($t=6.2, p<.001$)이 자기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수직-개인 성향의 경우 상관관계에서는 자기존중감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 1단계에 개인의 문화성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 자기존중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설명량이 18%로서 유의미하였으나 자기존중감을 통제된 개인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설명량도 11%로서 유의미하였다(표 4). 따라서 개인의 문화성향이 자기존중

표 5. 자기존중감에 대한 문화성향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F(4, 583)
자기수용	수직-개인	-.20	-4.8***	.16	27.6***
	수평-개인	.26	6.2***		
	수직-집단	.02	.4		
	수평-집단	.22	4.6***		

* $p < .05$, *** $p < .001$

표 6.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문화성향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F(4, 583)
주관적 안녕감	수직-개인	-.18	-4.2***	.11	17.8***
	수평-개인	.15	3.5***		
	수직-집단	.11	2.2		
	수평-집단	.17	3.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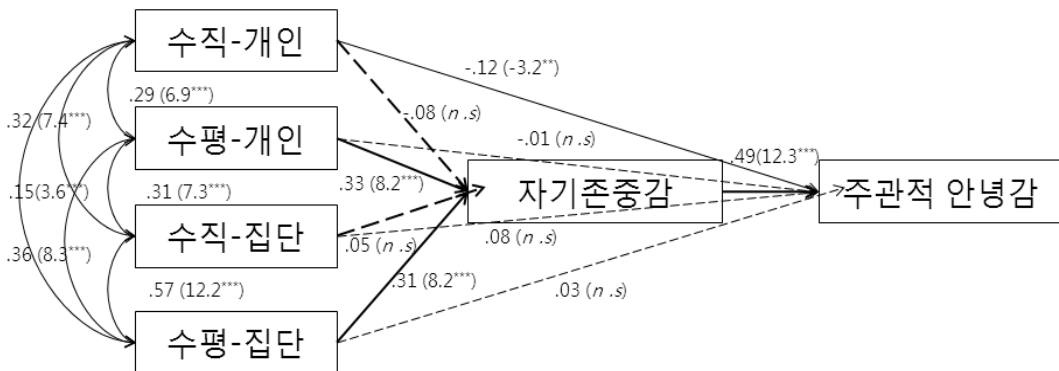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의 문화성향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주관적 안녕감을 직접 예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1982)가 제안한 방식대로 계산했을 때 자기존중감은 수평-개인과 수평-집단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평-개인 : $Z=6.7, p < .001$; 수평-집단 : $Z=5.5, p < .001$).

이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고 그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경로분

석 결과 이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5, p > .05$; NFI=.994, TLI=.967, CFI=.997, RMSEA=.045).

이 결과를 보면 수직-개인 성향은 직접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수평-개인 성향과 수평-집단 성향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만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집단 성향은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 7.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문화성향과 자기수용의 위계적 회귀분석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주관적 안녕감	모형 1	.33	.11	.11	17.5***
	모형 2	.38	.15	.04	31.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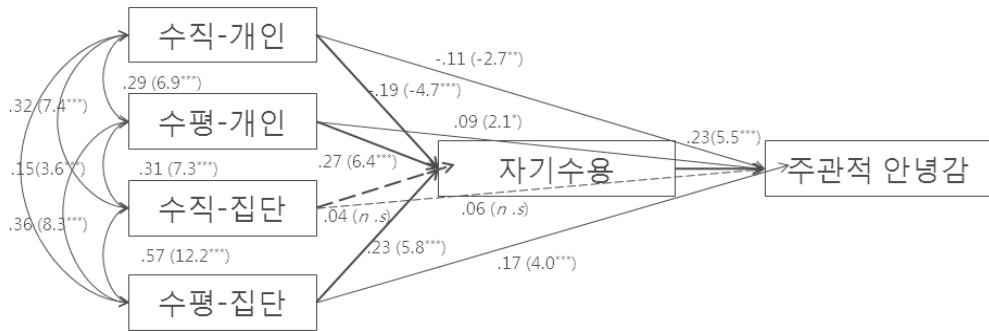


그림 2. 개인의 문화성향이 자기수용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개인의 문화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개인의 문화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간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화성향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문화성향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문화성향 가운데 수직-개인($t=4.8, p < .001$), 수평-개인($t=6.2, p < .001$), 수평-집단($t=4.6, p < .001$)이 자기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문화성향 가운데 수직-개인($t=4.2, p < .001$), 수평-개인($t=3.5, p < .001$), 수평-집단($t=3.5, p < .001$)이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마지막으로 개인의 문화성향과 자기수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 개인의 문화성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 자기수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기수용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설명량이 4%로서 유의미하였으나 자기존중감을 통제한 개인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설명량도 11%로서 유의미하였다(표 7). 따라서 개인의 문화성향이 자기수용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예언하기도 주관적 안녕감을 직접 예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1982)이 제안한 방식대로 계산했을 때 자기수용은 수직-개인, 수평-개인, 그리고 수평-집단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직 개인 : $Z=3.4, p < .001$; 수평-개인 : $Z=2.9, p < .001$; 수평-집단 : $Z=3.0, p < .01$).

이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고 그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이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4, p > .05$; NFI=.993, TLI=.958, CFI=.996, RMSEA=.044).

이 결과를 보면 수직-개인 성향, 수평-개인 성향, 수평-집단 성향은 자기수용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집단 성향은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논 의

최근 우리문화에 맞는 상담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론을 제한하거나 토착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정신건강 변인이 우리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한 연구는 거의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연구에서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서구에서 각광받는 개념이 문화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문화에서도 유용한 개념인 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신건강 영역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나 문화맥락에서는 연구가 많이 안 된 자기존중감과 자기존중감을 보완하는 개념인 자기수용이 우리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의 상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성향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만 나누었을 때 개인주의는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없었고 집단주의만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순형, 이영미 1997)에서 집단주의만 생활만족감과 상관이 있고 개인주의는 생활만족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허재홍, 진현정, 2008)에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생활만족감과 더 큰 상관을 보인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없고 집단주의 성향만이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성향(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을 수직-수평 차원으로 나누

어 보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 즉 수직-집단 성향이나 수평-집단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모두 정적 상관이 있어서 위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경우에는 수직-개인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던 반면 수평-개인 성향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모두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직-개인 성향, 즉 경쟁하고 이기려는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없으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지만 개인주의 성향도 상당히 있어서 집단주의 성향과 아울러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주의 성향 가운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성향만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교 전통에는 공동체주의 요소와 함께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최영진, 이좌용, 1996).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개인주의 사회의 가치 가운데 남을 이기고자 하는 성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자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집단주의 성향과 함께 개인주의 성향도 함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에 맞는 상담모형을 개발할 때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 가지 문화성향(수직-개인, 수평-개인, 수직-집단, 수평-집단)이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단계에 네 문화성향을 넣었을 때 11%를 설명하던 것이 2단계에 자기존중감을 넣었을 때 추가로 18%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를 확인한 것이다(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Kwan, Bond, Singelis, 1997). 또한 우리 문화에서도 자기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기존 연구들이 자기존중감이라는 개념을 집단주의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기존 연구들이 집단주의 문화권의 자기존중감 점수가 개인주의 문화권의 자기존중감보다 점수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고(Diener & Diener, 1995) 그 원인을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신건강과 관련성은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기존중감이라는 개념이 집단주의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들(Heine et al., 1999; Markus & Kitayama, 1991)도 있으나 본 연구와 함께 국내 연구들(박혜경, 2005; 허재홍, 진현정, 2008)에서도 자기존중감은 여전히 중요한 변인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우리문화에서는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전략은 우리 문화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된다고 하겠다.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에서는 수직-개인주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직-집단주의 성향은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평-개인주의 성향과 수평-집단주의 성향만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문화에서 경쟁을 중요시하는 성향은 개인의 행복에 방해가 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성향과 동료애와 협동을 추구하는 성향은 자기존중감을 높여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집단을 우선시하는 성향은 자기존중감이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문화에서도 가족이나 개인을 우선시하는 가치는 더 이상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안되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우되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에서도 가족의 가치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우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주변 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존중감과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인 무조건 자기수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1단계에 네 문화성향을 넣었을 때 11%를 설명하던 것이 2단계에 자기수용을 넣었을 때 5%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수용이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서구문화의 연구결과(Carson & Langer, 2006; Chamberlain & Haaga, 2001a, 2001b; Flett, Davis, & Hewitt, 2003)와 같은 맥락으로서 자기수용도 우리문화에서 자기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에서는 수직-개인주의 성향, 수평-개인주의 성향, 수평-집단주의 성향 모두 자기수용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직-개인주의 성향은 여전히 자기수용과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직-집단주의 성향은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수용도 자기존중감과 마찬가지로 문화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문화에서 자기수용도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자기수용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단점도 무난히 수용가능하기 때문인데(조공호, 2003) 자신의 단점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안녕감을 더 잘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화성향이 자기수용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개의 영향력은 자기존

중감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한국형 상담모형 개발과 연관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이나 남을 이기려는 성향은 개인의 행복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성취를 지향하는 전략은 내담자의 행복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즉 상담 장면에서 경쟁심을 강하게 보이는 내담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런 가치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을 우선하는 성향은 개인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 이는 가족이나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행복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집단을 위해 희생하여 가족이나 집단이 잘되는 것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내담자에게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전략과 함께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내담자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함께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주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내담자의 행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기존중감과 자기수용을 비교해 볼 때 자기존중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문화맥락에서는 자기수용보다는 자기존중감이 더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담모형 개발에서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온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이 문화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은 우리문화에서도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성향, 그리고 동료애와 협동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의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혔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한계,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다. 기존 연구경향을 따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을 검증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과 중년이상의 성인 집단을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문화성향으로 우리 문화 특성을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의미는 있으나 우리문화만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우리문화의 특성은 가족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족주의와 정신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문화의 특성인 가족주의가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힌다면 우리문화를 감안하여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윤주 (2001). 청소년기 초기의 부모-자녀 및 친구 관계. *한독교육학연구*, 1-18.
-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83-701.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81-204.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

- 을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61-481.
- 김윤명 (2009).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특성: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차원에서. 청소년문화포럼, 21, 10-44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1-24.
- 김일명, 김명자 (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류연지 (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윤호균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 온마음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05-522.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39-567.
- 이순형, 이영미 (1997).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4(1), 1-24.
-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87-607.
- 이종한 (1993). 남자와 여자 생산직 및 관리직 종사자의 분배원리 선호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7(1), 245-253.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장성숙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23-537.
- 조궁호 (1999).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과 정서의 조절. 사회과학연구, 6, 27-86.
- 조궁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나남출판: 서울.
- 조궁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 비교. 지식산업사: 서울.
- 주은선, 이해경, 주은지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 모색 - 인본주의 상담자들의 자기-보고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69-586.
- 최영진, 이좌용 (1996). 가족과 개인. 철학연구, 38, 33-47.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성열,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형태와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116-128.
-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기존중감 척도 :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허재홍, 진현정 (2008). 문화성향에 따라 자기고양편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475-148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thaud-Day, M. L., Rode, J. C., Mooney, C. H., Near, J. P.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construct: a test of its convergent, discriminant, and factorial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45-476.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eister, R. F. (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 esteem: Uncertain, fragile, 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regard* (pp. 201-218). New York: Plenum.
- Brown, J. D. (1998). *The self*. Boston, MA : McGraw-Hill.
- Carson, S. H., & Langer, E. J.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4(1), 29-43.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a).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77-189.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b).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63-176.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llis, A. (1994).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Birch Lane Press, New York.
- Fennell, M. (1999). *Overcoming Low Self-Esteem*. Constable and Robinson, London.
- Flett, G. L., Richard, A. B., Davis,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1(2), 119-138.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D. (1999).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ine, S. J., Takata, T., & Lehman, D. R. (2000). Beyond self-presentation: Evidence for self-criticism among Japane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71-78.
- Kernis, M. H., Cornell, D. P., Sun, C-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90-1204.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247-259). Singapore: Wiley.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3(5), 1038-1051.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 Sociometer theory. In M. Zanna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 Psychology*(Vol.32, pp. 1-4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inehan, M. M. (1993). *Cognitive behavior therap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acin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 Mackay, M., David, M., & Fanning, P. (1998). *Thoughts and Feelings*, New Harbinger Publication, Palo Alto, CA.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 Wadsworth.
- Mecca, A. M., Smelser, N. J., & Vascondellos, J. (Eds.). (1989).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 esteem*.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ruk, C. (1995).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gal, Z. V., Williams, J. M., & Teasdale, J. D. (2002).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A new approach to preventing relapse*. New York: Guilford Press.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Wang, Y., & Ollendick, T. H. (2001). A cross-cultural and developmental analysis of self-esteem in chinese and western childre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3), 253-271
- Yetim, U. (2003). The impact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esteem, and feeling of mastery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turkish university students and academicia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3), 297-317.
- 원 고 접 수 일 : 2009.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16.

The Eff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Mediation of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Jae-hong Heo

KKottongae Hyundo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Both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re commonly used concepts in the mental health field in Korea. People use those imported concepts without contemplating their effectiveness in explaining Koreans'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orien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s. Data was collected from 615 college students in 4 counties in Korea,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mediated the effects of cultural orientation to one's subjective wellbeing. Among cultural orientation, horizontal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collectivism had effect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the mediation of self-esteem and/or self-acceptanc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istic values are as important as collectivistic ones in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n culture, although Korea is categorized as a collectivistic society, when mediated by self-esteem and/or self-acceptance.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a client's individualistic values as well as collectivistic ones in counseling in order to enhance the client's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 individualism, collectivism, self esteem,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subjective wellbeing